

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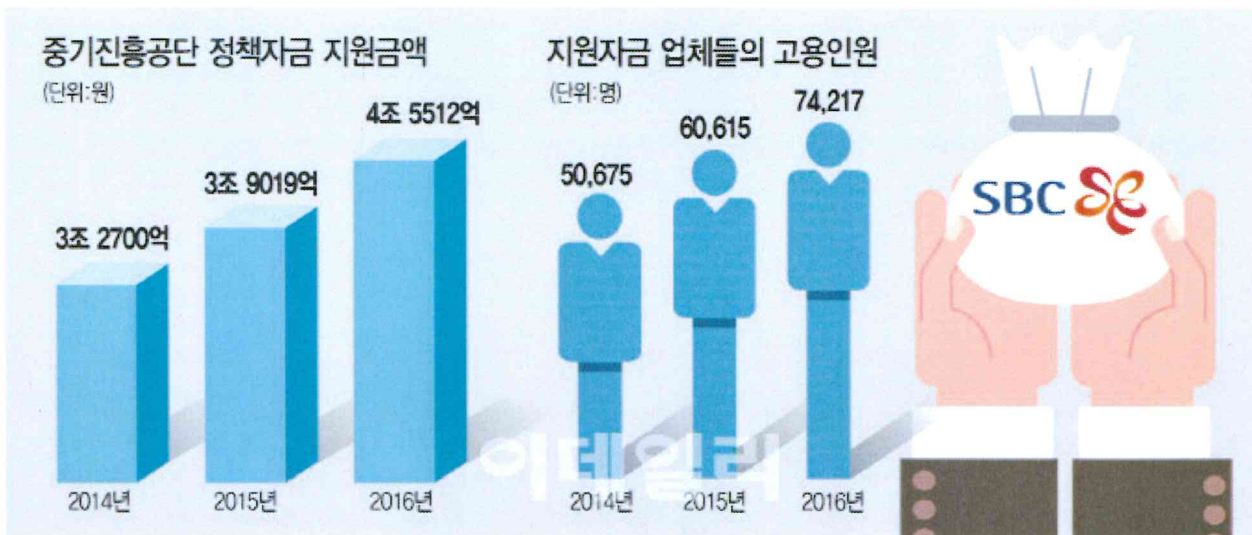


# [희망씨앗, 정책자금] ① 中企엔 너무 높은 은행 문턱...정부 정책자금이 '단비'

입력시간 | 2017-05-18 05: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1년간 직장인으로 일하다 사업가로 변신한 최범영(49) 에이피월드 대표는 창업 초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 그는 수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금융권을 전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다. 그런 그에게 내린 한 줄기 단비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지원자금' 10억원이었다. 중진공의 지원 덕분에 대(對)중국 아스팔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에이피월드의 매출액은 2014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매출 350억으로 3.5배나 급성장했다.

강원도 강릉에서 커피머신, 빙수파우더, 빙수기계 등을 제조하고 있는 이동희(33) 로스팅컴퍼니로움 대표는 제조 설비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 대표는 중기청·중진공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3억3000만원을 받아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었다. 지원금을 통해 건설링·유통업에서 제조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로스팅컴퍼니로움은 지난해 5억 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 ◇중진공 정책자금, 기업의 미래 가능성에 초점

중소기업에 금융권은 흔히 '만리장성'으로 불린다. 그만큼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기술력과 비전을 갖췄지만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은 '오아시스'같은 존재다. 상환 가능성부터 따져 '비올때 우산을 뺏는 존재'라는 소리를 듣는 일반 금융권과 달리 중진공 정책자금은 기업의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중기청·중진공 정책자금은 크게 △창업기업지원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긴급경

영안정 △재도약지원 △투융자복합으로 구성 돼 있다. 중진공은 2015년 총 3조9019억원(1만7796건)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지난해는 '슈퍼추경' 영향으로 정책자금이 4조5512억원(2만1224건)으로 크게 늘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의 도움을 받았다.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3% 중후반대다. 반면 창업지원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기준·현재 2.3%)보다 0.3%포인트 낮아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올해는 총 3조58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 중이다. 정책자금을 용자받기 위해선 중진공 각 지역본부와 상담, 기업 진단·평가가 수반된다.

중진공 정책자금의 효용성은 숫자로 나타난다. '2015년 정책자금 용자사업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공 정책자금의 손길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지원 전보다 평균 9.3% 증가했다.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96%라는 것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라는 분석이다.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고용증가율 역시 괄목할 만하다. 2015년 기준 제조업 평균 고용증가율 1.26%에 불과했다. 반면 중진공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고용은 전년대비 8.7%로 7배 높게 나왔다. 일자리 창출 수로 보면 중진공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들의 고용인원은 2014년 5만0675명, 2015년 6만0615명, 지난해 7만4217명 등 꾸준히 늘었다.

#### ◇수익성 '기준' 무용론... "정책자금 본질 모르는 소리"

단 영업이익률의 경우 전체사업에서 3.8%로 중소기업평균 영업이익률인 4.38% 대비 낮게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정책자금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심지어 '중소기업 용자 지원 기능의 민간은행 이양'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책자금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반응이다.

조한교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정책자금을 받으면 투입자본이 커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수익성은 낮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영 상황에 문제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정책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기업의 미래보다는 대출금 환수에만 급급해 하는 금융권 관행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자금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고 강조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서 중소기업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안전판 및 성장판 역할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